

[ 발표 2 ]

## 학대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

김혜영(수원과학대학)

###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이후로 아동학대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1)</sup>.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동학대 전국실태 조사에 의해 추정된 아동학대 발생률<sup>2)</sup>을 감안하면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물론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해 보다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이후로 학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야기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상당수에 이른다(김혜영, 2004; Bolger & Patterson, 2001; Lansford et al., 2002; Howe, 2004; McMillen et al., 2005).

그러나, 최근에 학대 아동에 대한 문제 중심적 시각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강점 관점에서의 실천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들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지만 이에 잘 대처해 온 개인들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을 주목하고 있다(Luthar, 1991., Romans et al., 1995, Perkins 외, 2004). 즉, 적응 유연성을 갖게 하는 보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유연성이 있는 개인은 학업적 성취, 자아개념, 대인관계 능력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특성, 가족 및 가족이외의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에 의해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개인적, 가족적 환경에서 보호요인을 살펴보았다(Romans et al., 1995; Luthar, 1991). 그러나, 청소년기는 개인 및 가족 외의 사회 환경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대 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적, 가족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 외 사회적 환경 즉, 부모 이외의 성인에 의한 영향, 학교 환경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Perkin 등(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가족적, 가족 외 사회적 환경에서의 보호요인을 포함하였지만,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위험행동의 유무로만 평가하였던 제한점이 있다.

국내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이상준, 2006),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김순규,

1) 2001년 4,133건, 2002년 4,111건, 2003년 4,983건, 2004년 6,998건, 2005년 800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임

2) 아동학대 발생률은 연구에 따라 2.6%에서 43.7%까지 보고됨. 2.6%로 간주하였을 경우 약 44만 9천명으로 추정(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등 소수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위험요인을 특정 보호요인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학대 경험 아동들이 일부 영역에서 적응 유연성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은 적응 유연성이 없으며, 심지어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Perkin, 2004 재인용). Kaufman 등(1994)의 연구에서도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약 60% 이상이 학업적 적응유연성이 있었으나, 동일한 아동의 사회적 영역에서의 적응유연성은 21%에 불과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대 경험 청소년들을 위한 실천적 접근의 방향과 초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의 모형을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가족 외 환경에서의 보호요인들의 차이를 밝혀 아동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학대집단과 학대 고위험집단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의 정도를 살펴본다.
2. 비학대집단과 학대 고위험집단의 보호요인의 정도를 살펴본다.
3. 학대 고위험집단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을 밝힌다.
4. 학대 고위험집단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들을 밝힌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많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영향들을 경감시키는 개인 및 환경적 특성들로 적응유연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Henderson and Milsten, 1996; 김순규, 2007 재인용).

적응유연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빈곤,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위험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존감, 학업적 성과, 사회적응 등의 긍정적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는 보호요인들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Luthar(1991)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위험과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긍정적 사건과 내적 통제소재, 지능, 자아발달, 사회기술 등을 밝혔다. DeLorme(2004)는 아동기 학대의 위험과 자존감 및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영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지향성이 보호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 2. 위험행동과 보호요인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으면서도 개인이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보호요인은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가족, 친구, 학교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18세에서 59세 빈곤가정 학대 경험청소년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Kaslow 외, 2002)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자에 비해 비경험자가 희망과 자기효능감, 대처

기술, 가족지지, 친구지지, 물질적 자원 등이 보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enson(1990)도 가족 외부의 성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것은 청소년이 위험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P 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1,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실업,인문)의 비율에 따라 11개교를 비례층화 표집하였다. 중학교가 6개교, 학교당 3개 학급, 총 18개 학급, 고등학교는 인문계 3개교, 실업계 2개교로 학교당 4개 학급, 총 20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행정가와 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학생 특별활동시간에 교사가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중학생 619명, 고등학생 623명, 총 1242명이었고, 응답에 불성실한 29 사례를 제외한 1213사례를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할 학대 고위험 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1213사례 중 학대경험이 없는 329사례를 먼저 제외한 다음, 학대 경험이 있는 884 사례 중 상위 약 50%, 461사례를 선별하였다.

학대 고위험 집단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모형을 밝히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중속변수는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이다. 적응유연성은 개인적, 사회적, 학업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유능감, 사회성, 학업태도 요인이고, 위험행동은 음주, 흡연, 가출, 자살시도, 섭식문제, 폭력행위, 절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 및 가족 요인으로 낙관성, 종교적 신념, 교과 외 활동-학습 관련 활동과 취미활동, 가족 지지,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 친한 친구의 친사회성, 학교 분위기 등이다. 또한, 청소년의 학년 및 성별을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표1>에서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만 제시하였다. 학대고위험 집단의 사회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낙관성이  $\beta$ 계수 .196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컸고,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친구 특성이  $\beta$ 계수 .144, 종교적 신념은 .017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학대 경험 청소년의 친한 친구가 친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고, 청소년이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종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낙관성은  $\beta$ 계수 .491로 유의확률 .001에서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종교적 신념  $\beta$ 계수 .248, 성인의 지지가 .104의 순이었다. 이는 학대경험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고, 종교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이외의 다른 성인의 지지가 있을 때 자기 유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태도에 미치는 보호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취미활동만  $\beta$ 계수 .122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학대경험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동기 및 열성적인 학업태도는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적응유연성에 대한 보호요인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자기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낙관성, 종교적 신념, 성인의 지지 모형이  $R^2$  .43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성에 미치는 낙관성, 종교적 신념, 친구특성 모형이  $R^2$  .116을 나타낸 반면, 학업태도를 설명하는 모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보호요인 모형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학대고위험 집단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보호요인	B	SE	$\beta$	t	F	$R^2$
사회성	종교적신념	5.423E-02	.025	.017	2.129*	5.510 ***	.116
	낙관성	.150	.040	.196	3.774***		
	친구특성	.134	.050	.144	2.683***		
자기유능감	종교적신념	.168	.027	.248	6.162***	32.201***	.433
	낙관성	.503	7.119E-02	.043	11.808**		
	성인의 지지		.033	.104	2.164*		
학업태도	취미 활동	.318	.130	.122	2.456*	1.912*	.043

\* $p < .05$  \*\* $p < .01$  \*\*\* $p < .001$

## 2.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표 2>에서는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만 제시하였다.

학대고위험집단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친구특성으로  $\beta$ 계수 -.297이었고,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친한 친구의 반사회적 특성이 음주 빈도 및 정도를 높인다고 말할 수 있다.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모형은 친구특성이  $\beta$ 계수 -.367로 가장 영향력이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지지가 -.128, 종교적 신념이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한 친구의 반사회적 특성이 높고, 가족의 지지가 낮고, 종교적 활동에 참여가 적을 때 흡연의 빈도 및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출에 대한 보호요인 모형의 경우에도 친구 특성이  $\beta$ 계수 -.235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낙관성이 -.170, 종교적 신념이 .129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친구의 반사회적 특성이 높고, 낙관성이 부족할 경우에 가출의 빈도가 높아지고, 한편 종교적 활동도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살시도, 섭식장애, 폭력행위, 절도 등을 설명하는 보호요인 모형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낙관성, 친구의 친사회적 특성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2> 학대 고위험집단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위험행동	보호요인	B	SE	$\beta$	t	R <sup>2</sup>	F
음주	학년	.169	.032	.249	5.350***	.146	7.176***
	친구특성	-9.13E-02	.016	-.297	-5.636***		
흡연	학년	.174	.039	.205	4.461***	.163	8.178***
	종교적 신념	-4.72E-02	.015	-.150	-3.057**		
	가족 지지	-2.899E-02	.012	-.128	-2.323*		
가출	친구특성	-.141	.020	-.367	-7.054***	.156	7.771***
	성별	.162	.055	.135	2.945**		
	종교적 신념	2.437E-02	.009	.129	2.520**		
	낙관성	-2.90E-02	.009	-.170	-3.336***		
자살시도	친구특성	-5.41E-02	.012	-.235	-4.492***	.142	6.941***
	성별	.173	.046	.174	3.759***		
	낙관성	-2.06E-02	.007	-.145	-2.834**		
섭식장애	친구특성	-4.00E-02	.010	-.210	-3.982***	.147	7.273***
	학년	-3.17E-02	.015	-.098	-2.104***		
	성별	.149	.035	.194	4.199**		
	낙관성	-1.85E-02	.006	-.170	-3.316***		
폭력행위	친구특성	-2.42E-02	.008	-.165	-3.132**	.159	7.981***
	낙관성	-4.65E-02	.019	-.127	-2.507**		
절도	친구특성	-.195	.026	-.388	-7.436**	.093	4.332***
	낙관성	-3.77E-02	.019	-.104	-1.981**		
	친구특성	-.146	.026	-.300	-5.537***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가족 외 환경에서의 보호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대 고위험 청소년집단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적응유연성은 다소 낮았고, 위험행동에 관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대 고위험 청소년집단의 보호요인은 비학대 청소년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가족 지지, 친구의 친사회적 특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대 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보호 요인의 영향력을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래에 대한 낙관성, 친한 친구의 친사회성, 종교적 신념 등은 적응유연성과 다양한 유형의 위험행동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이었다. 그 밖에 다른 성인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 유능감 향상 측면에서만 영향력이 있었고,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흡연문제에서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학교 분위기, 다른 성인의 지지, 가족지지 요인의 영향력이 선행연구(Perkin 등, 2004)만큼 부각되지 않았고, 낙관성, 종교적 신념, 친한 친구의 친사회적 특성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위험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호요인 중심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경험 청소년들이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개별 및 집단 상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인지-행동주의 모델은 부정적, 비관적인 인지구조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기유능감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족지지, 다른 성인의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점은 비공식적, 공식적 자원체계의 강화를 통해 학대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피학대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친척 및 친구, 이웃, 종교기관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가족치료 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같은 공식적 지지체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가정 및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시에 비공식적 지지자원을 활성화하고, 공식적 체계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경험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과 위협행동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친구의 친사회적 특성을 들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인 경우 청소년들의 친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천이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순규(2007) 보호요인이 피학대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 59권 2호, pp251-276.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enson, P. L. (1990), *The troubled journey: A portrait of 6th-12th grade youth*.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Blum, R. W., Beuhring, T., & Rinehart, P. M. (2000). *Protecting teens: Beyond race, income, and family structure*. Minneapolis, MN:Center for Adolescent Health, University of Minnesota.
- Bolger, K. E., &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pp.549-568.
- Howe, M. L., Cicchetti, D., Toth, S. L., & Cerrito, B. M (2004). True and false memories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5(5), pp.1402-1416.
- Luther, S. S (1991) Vulnerability &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pp.600-612.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pp547-563.